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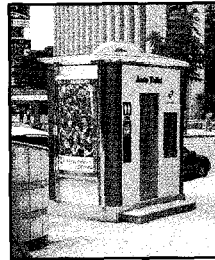
# 화장실 파티션 속으로 잠시 숨어보았다.

글. 최준석  
/노드건축디자인연구소/

## Partition

이란 주제를 참 들었을 때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 공중화장실의 칸막이었다.

꼬리를 물고 물어 손가는 대로 글을 만들어본다.  
화장실 칸막이 벽뒤로 슬금슬금 들어가 보자.  
간이 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름 모를 남녀의 섹스를 상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을 범죄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선생에 눈을 피해 담배를 한 모금 빨던 중고시절이 연상되기도 한다.  
공포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으스스한 장소가 바로 공중 화장실이고, 상관한테 혼난 직원이 분을 삭이는 장소이기도 하며, 누군가 팽팽이를 치고는 잠을 청할 수도 있다.  
몰래 카메라가 사방팔방에서 자신을 들여다볼지 모르는 요즘이지만, 아직까지 그런대로 심리적인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몇 안되는 장소가 공중화장실 칸막이 뒤편이다.  
한숨 한번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오늘날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장(場)이 아닌 걱정과 근심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것이다.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외부에서 불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비단 화장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과 할 일들을 무진장하게 만들어내면서 그에 비례하여 인공적인 구획이나 새로운 공간들이 마구잡이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길거리 화장실

오죽하면 종로 길거리 한복판에 동전을 넣고 이용할 수 있는 길거리 화장실마저 생겨났으니.....  
초고속 정보화시대 어찌고 하는 세상의 한편에 이렇듯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야성이 숨을 쉬고 있음이 재미있을 뿐이다.  
생각해보라! PDA를 옆에 차고 핸드폰을 끼고 가다가 갑자기 살살 배가 아파지는 바람에 버스정

류장 옆에 있는 1坪이 채 안 되는 원통 속에 동전을 넣고 들어가 불일을 봐야만 하는 인간의 운명을....  
도심 한복판이라는 메가톤급 퍼블릭과 엉덩이를 까고 불일을 보야 한다는 가장 인간적인 프라이버시 행위가 아주 얇은 막 하나를 놓고 이루어진다니.....  
단면도를 그려본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목적의 절실함이 새로운 공간을 만든 경우이다.  
하지만, 길거리 화장실에선 강철로 벽을 친다해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안정감은 없을 것이다.  
내가 지금 보도블럭 위에서 불일을 보는 것이어닌가?

## 解憂所

별난 화장실의 경우로 선암사를 가보자. 그곳에 불가리스 CF에 나온 해우소(解憂所)가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엽기적이라 느끼실 것이다.

앉은 자세에서는 머리끝만 살짝 보일 정도의 낮은 파티션으로 최소한의 설치만 취하고 주변의 향기나 소음은 물론 다양한 시각적 정보까지 제공한다.

불일보고 일어서면 주변에서 같이 불일 보던 동지들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정겨운 광경인가...

해우소란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라는 의미이니...

목적만을 취하는 도심지의 길거리 화장실과는 다른 철학적인 면도 엿보인다.

화장실은 생리적인 근심뿐 아니라, 생각의 근심을 덜어내는 곳 아니던가...

새가 한가롭게 울고... 머리 위로는 실바람이 지나가고... 자연을 느끼며 불일을 본다.

좀 특이한 경우로 해우소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화장실도 있다.

중국 상해의 어느 공중화장실 후일담을 누군가에게 듣게 되었다.

가느다란 도랑을 하나 파고는 촘촘히 사람 허리 높이의 칸막이를 친다. 도랑은 배설물을 이동시키는 일종의 수로로서 경사가 있다.

사람들은 각각 지정된 장소에 들어가서 불일을 본다.

이 시스템은 우선 각 칸막이의 문이 없고, 전면이 완전 오픈 되어 있다는 점과 선암사의 해우소처럼 사람이 앉았을 때만 최소한의 시선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도랑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엉덩이 밑으로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타인의 배설물을 통과시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말 가장 중국다운 문화일 듯하다. 인구가 13억이나 되면 이 정도쯤은 참고 살아야 하나보다.

이런 화장실에서의 배설이란... 얼른 해치워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런 곳에서 생각의 근심까지 해소 하기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화장실은 가장 원초적이며 인간적인 장소이다.

그러기에 다양한 해석에 따라 혹은 지역의 문화나 장소의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물론 불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제 1순위 고려사항이므로 그것만 충족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완전 밀폐된 튼튼한 파티션의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거의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는 화장실도 있다.

그렇지만, 반드시 완벽하게 틀어막는다고 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개방되었다 해서 꼭 불안하게 되지도 않는다.



■ 선암사의 해우소



■ 해우소의 내부

결국 적당히 막혀있고 주변이 볼 일 보기에 큰 문제만 없다면 괜찮다.

난 오늘도 거리를 걷다가 낮은 건물 화장실을 찾아가 파티션의 뒷편으로 세상을 등지고 잠시 숨는다. 한숨을 훑~ 내쉬고는 자리를 잡아 앉았는데, 눈앞에 이런 글귀가 들어온다.

오늘의 명언  
의지할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나폴레옹  
GM 나이트클럽 6번 웨이터 나폴레옹에게 의지하십시오.

급전대출 신용카드 문제상담  
782-\*\*\*\* 미스장

외로우신 남성분들 환영!! 풀코스 출장 마사지!!  
016-\*\*\*-\*\*\*\* 유나

좋은 화장실은 가끔 쓸쓸한 정보까지 제공한다. 칸막이가 게시판이 되는 것이다. 입을 거리가 없어도 지루하지 않게 불일을 볼 수가 있다.

당신에겐 혹시 기억나는 해우소가 있는가?